

전남 풍수해보험 가입률 가장 높다

48.2%로 17개 시도 중 1위
광주 18.9%로 전국 평균보다 ↓
저소득층 가입 비중 98.7%

(19.5%), 광주(18.9%) 순이었다. 가장 가입률이 낮은 지역은 2.8%를 보인 서울이었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보험 가입 대상 12만2279 가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인 5만 8985가구가 가입했다.

전남지역 최근 3년간 보험 가입률은 2016년 23.1%→2017년 25.2%→2018년 48.2%로 매년 오르고 있다.

반면 광주지역 가입률은 2016년 41.3%에서 1년 뒤 49.7%로 올랐지만 지난해는 18.9%로 오히려 낮아졌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가입 대상 7만9885가구의 5분의 1 꼴인 1만5069가구 만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 지역별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전남이 5만8985명으로 전체(37만명) 15.6%를 차지했고 경기 5만470, 전북 4만8002, 경남 4만626, 충남 3만8772, 경북 2만 9595, 부산 2만554, 충북 1만7026, 강원 1

■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률



(단위:%)

〈자료:소병훈 의원실〉

만6331, 광주 1만5069가 뒤를 이었다.

전남지역은 저소득층 농업인의 풍수해보험 가입 비중도 전국에서 가장 컸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의 풍수재해보험 가입 비중은 전남이 98.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73.7%보다 높았고 ▲울산·경남 각 89.9% ▲대전·전북 각 87.2% ▲대구 84.3% ▲부산·충남 각 64.5% ▲강원 58.4% 등이 뒤를 따랐다. 광주 지역 저소득층 가입 비중은 전체의 34.5%를 차지해 세종(0%)과 인천(13.1%)에 이어 뒤에서 세 번째를 기록했다.

이는 전남지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소농의 보험접근성이 비교적 높다는 뜻으로,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농업인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지역에선 9월30일 기준 6만 8223농가에서 11만2678ha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이 가운데 7200농가에서 총 316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전남도는 올해 벼 등 농작물재해보험료로 도비 70억 원 등 모두 700억 원을 확보해 가입가능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조달청, 11일까지 153억 규모 물품 입찰

성능인증·우수조달물품 96억

는 전체(2466억원)의 6.2%로, 올해 누계분 점유율은 6.1%이다.

광주지방조달청이 153억원 규모 물품 입찰을 오는 11일까지 집행한다.

주요 입찰 내용을 보면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을 위한 무선 AP'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을 진행한다. 성능인증제품·우수조달물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6.8%인 96억원을 차지한다.

3일 조달청 '물품·용역분야 주간 입찰 동향'에 따르면 광주조달청은 오는 7~11일 23건에 대한 153억원 규모 입찰을 집행한다.

광주조달청의 이달 둘째 주 입찰규모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기업 서점업 진출·확장 5년간 금지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첫 대상 서점업 지정

소상공인의 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첫 대상으로 서점업이 지정됐다.

서점업은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 업종으로, 평균매출이 2억2600만원, 평균 영업이익이 2100만원 등으로 전반적으로 사업 규모가 영세하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5년간 대기업은 서점업 진출·확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8월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체 월 평균 매출은 대기업 점포가 인근 4km 이내 진출한 1년 6개월 뒤 1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민간 전문가와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을 18일부터 2024년 10월17일까지 5년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서점업 사업자는 광주 266명, 전남 245명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은 이 기간 동안 서점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광주지역에서는 서점 사업자가 서구(65명)에 가장 많고, 북구 63명, 광산구 56명, 남구 44명, 동구 38명이 뒤를 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하나로마트 추석선물 판매

호남권역 농기업 제품 인기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팔린 추석선물 가운데 호남권역 농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가장 인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하나로유통 호남지사는 최근 호남권역 농업인 생산기업 10개 업체 대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2019년 농기업상품 추석 선물세트 전국판매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진우 호남지사장과 농기업 대표들은 '호남권 농업인 생산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협의회 참가자들은 호남 농기업 제품의 지속적인 판매 마케팅 전략과 효율적인 판촉행사 진행 방안 등을 협의했다.

강 지사장은 이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팔린 2019년 추석 농업인 생산기업 선물세트 중 인기를 끌었던 품목은 기름이나 버섯, 장류 등 대부분 호남권역 농기업 제품이었다"고 말했다.



호남권 농업인 생산기업 판로확대 협의회

농협하나로유통 호남지사는 지난 1일 호남권역 농업인 생산기업 10개 업체 대표를 초청해 '호남권 농업인 생산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의회'를 열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정부, 태풍피해 농가 벼 희망물량 전량 매입

농림부, 12월까지...전남 피해면적 전국의 37.6%

정부가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의 벼 수매 희망물량을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태풍 '링링' '타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논 면적은 전남 1만97ha를 포함한 2만6798ha로 나타났다.

전남 피해 면적은 전국의 37.6% 수준으로 가장 컸고, 전북(5882ha), 충남(4789ha)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농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매입 규격을 신설, 벼 수매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오는 8일까지 지역별 벼 피해 현황과 수매 희망 물량을 조사한 뒤 같은 달 21일부터 연말까지 매입을 추진한다. 매입 대상은 벼 낱알이 찢은 상태가 지속돼 싹이 트는 '수발아'와 낱알이 검거나 하얗게 변해 쪽집이가 되는 '흑·백수' 등이 해당한다.

매입 규격은 오는 16일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매입 가격은 피해 벼 상태·품질 등을

감안해 결정하며, 중간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정산한다.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하며 톤백(600kg) 또는 포대벼(30kg) 포장 단량으로 매입한다. 또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하며 매입일을 별도로 지정해 매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런 태풍 피해 벼 매입을 통해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카드·스마트폰 없어도 얼굴 결제시대 열린다

신한카드 11월 출시

금융위 혁신서비스 추가

카드나 스마트폰이 없어도 얼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안에 처음 출시된다. 바이오인식 결제 서비스를 올해 11월께 내놓는다.

고, 가맹점에서 얼굴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결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다만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은 한양대학교 내 가맹점에서만 운영된다.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바이오인식 결제 서비스를 내놓는다.

이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애플리케이션(앱) 인증 같은 본인확인으로 간소화하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인의 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 명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고 알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이 내년 5월부터 선보일 금융투자 상품권 거래 서비스는 소비자 가 한국투자증권의 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사거나 선물할 수 있고, 하나카드는 금융계좌가 없어도 선불 전자 지급 수단에 쌓인 포인트를 체크카드에 담아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내년 1월 출시한다.

신한카드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를 올해 11월께 내놓는다.

이들 서비스의 추가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53건으로 늘었다.

눈·입·코·턱 간의 각도와 거리, 뼈의 돌출 정도 같은 얼굴 특징을 3차원(3D) 카메라로 추출해 인증센터에 등록하

고, 가맹점에서 얼굴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결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다만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은 한양대학교 내 가맹점에서만 운영된다.

/연합뉴스

동부 센트레빌,상가 사정상 급매 | 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1층 상가,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 급매 - 9억 → 7억원
- 임대 -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350만원

덕남동,임야 매매 장단기 최고 투자권

- 덕남동 임야, 992m²,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